

22년전 '변호사 피살사건' 해결되나

경찰, 살인교사 용의자 해외서 검거해 18일 제주 송환 용의자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직접 살인혐의는 부인 '공소시효' 쟁점... 경찰 "형사처벌 도피목적 증거있다"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뒤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검거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방송사 인터뷰, 사건 전환 시발점=이 변호사는 지난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도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한 아파트 입구 삼거리로 주차된 소나타 차량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예리한 흉기에 찔려 생긴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이다.

경찰은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가 없어 범인을 잡지 못했다. 결국 2014년 11월 5일 0시, 공소시효가 끝나 장기미제로 남았다.

하지만 지난해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조직폭력단체 전 행동대원 김모(55)씨가 "두목 백모씨의 명령으로 갈매기로 불린 손모씨가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흉기 모양을 비슷하게 그려 보여줬고, 변호사의 이동 동선 및 골목 가로등이 꺼진 정황도 알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직접 살해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살인 교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용의자 검거 과정=20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해외에 도피 중이던 김씨는 지난 6월 캄보디아 포이펏에서 차를 타고 수도인 프놈펜으로 이동하다 현지 경찰관에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혔다. 이후 인터뷰 적색수배 및 현지법에 따라 추방이 결정됐고 경찰은 김씨를 현지에서 체포해 지난 18일 국내로 압송했다.

▶공소시효 쟁점=태안이법 적용=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김씨가 해외로 출국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253조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면 출국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와 함께 2015년 7월 24일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안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해 법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살인 교사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찰이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공소시효 만료 전에 여러 차례 해외를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을 모두 합치면 8개월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즉,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4년 11월 5일 자정이 아닌, 해외 입국한 기간을 제외하면 2015년 7월 5일 이후가 되는 것이다.



장기미제로 남아있는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55)씨가 지난 1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에서 경찰에 의해 압송되고 있다. 이상규기자

경찰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피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의 출입국 기록과 판례 등을 분석해보니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김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치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민성기자

"올해 양쯔강發 저염분수 유입 없다" 도, 해양관측장비 총동원 7-8월 실시간 모니터링

올해 중국 양쯔강에서 유출되는 고수온·저염분수의 제주 연안 유입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동중국해 먼 바다까지 무인해양관측장비를 투입해 광역예찰을 실시한 결과, 양쯔강에서 유출되는 고수온·저염분수는 현재 중국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제주 연안으로 유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2일 밝혔다.

도 해양수산연구원은 무인해양관측장비를 활용해 7-8월 사이 마라도 서남쪽 150km 해역 4개 정점(총 연장 380km)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벌였다.

관측 결과 대상 해역의 표층수온은 19.14~28.65℃, 표층염분은 27.33~31.75psu를 보여 저염분수 유입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연구원은 현재 운영 중인 연근해 예찰조사팀, 마을 어장 예찰조사팀, 양식생물 지도팀으로 구성된 비상상황반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양쯔강 담수는 우리나라 해역에 고수온 저염분수(바닷물 수온 27℃ 이상, 표층 염분농도 26psu이하)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다. 저염분수는 염분농도가 낮고 수온이 높아 서남쪽 150km 해역 4개 정점(총 연장 380km)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벌였다.

관측 결과 대상 해역의 표층수온은 19.14~28.65℃, 표층염분은 27.33~31.75psu를 보여 저염분수 유입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연구원은 현재 운영 중인 연근해 예찰조사팀, 마을 어장 예찰조사팀, 양식생물 지도팀으로 구성된 비상상황반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양쯔강 담수는 우리나라 해역에 고수온 저염분수(바닷물 수온 27℃ 이상, 표층 염분농도 26psu이하)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다. 저염분수는 염분농도가 낮고 수온이 높아 서남쪽 150km 해역 4개 정점(총 연장 380km)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벌였다.

관측 결과 대상 해역의 표층수온은 19.14~28.65℃, 표층염분은 27.33~31.75psu를 보여 저염분수 유입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일지

- ▶1999년 11월 5일=이승용 변호사가 제주도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
- ▶1999년 11월 6일=경찰, 7개팀 4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 설치.
- ▶2000년=수사본부 해체.
- ▶2007년 12월=살인죄 공소시효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지만, 이승용 변호사 사건은 이전 사건이라 제외.
- ▶2014년 11월 4일=공소시효 만료.
- ▶2015년 7월 31일=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태안이법' 시행.
- ▶2020년 6월 27일=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주 조직폭력단체에서 활동한 제보자가 자신이 이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 경찰 재수사 결정.
- ▶2021년 6월 23일=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용의자 김모(55)씨 체포.
- ▶2021년 8월 18일=용의자 김씨 제주로 압송.
- ▶2021년 8월 21일=제주지방법원 '도주 우려'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이 변호사가 살해된 채 발견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한라일보 DB

활어 이송차량 화재 교차로서 차 충돌·2명 사상

제주항에서 정차중이던 활어 이송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44분쯤 제주도 건입동 제주항 2부두 내에 정차돼있던 활어 이송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신고 접수 10여분만인 낮 12시54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 화재로 인해 차량 운전자 유모(59)씨가 등과 팔 등에 화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교차로서 차 충돌·2명 사상

지난 20일 오후 6시18분쯤 제주도 구좌읍 상도리 세화고등학교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A(59)씨가 몰던 승용차와 B(56)씨가 운전하던 SUV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7시32분 숨졌다. B씨 역시 경상을 입고 제주시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eb1119@ihalla.com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씹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추는 역할, 양분용량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앞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와코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검색 코코리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거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하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굴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